

포장기술관리사 ‘자격증’으로 업그레이드 되길

김 승 철 / 동일알루미늄(주) 영업부 사원



“한주 한주 대충하지 않고 답안을 작성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답안 작성하면서 그동안 대략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들을 책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18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결과 동일알루미늄(주) 영업부 김승철 씨가 총점 1백점 만점에 91.2점을 획득해, 전체 수료자 가운데 3등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김승철 씨는 현재 동일알루미늄에서 Foil을 판매하는 부서에서 연포장, 산업재 등에 사용되는 AL-Foil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이미, 동일알루미늄에는 협회가 진행 중인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수료자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김승철 씨 역시 “회사에서 포장기술관리사라는 것을 추천해 줬고, 부서에도 한분이 수료증을 갖고 있어 이번 교육을 신청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면서 통신교육 기간 동안 귀찮은 마음도 컸지만, 최선을 다해 정성껏 레포트를 작성해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기간 동안, 부

서에서나 회사에서나 거의 막내급이어서 업무를 하기에 미숙해 레포트를 작성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답안 마감 기일에 급히 제출했던 점이 시간적으로도 아쉬웠다고 전했다.

김승철 씨는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이 11주간 장기로 진행되는 만큼, 많은 수료자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취득하는 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수료함으로써 고객 상담 시 더욱 상담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그는, AL-Foil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동일에 문의해 달라며, 영업맨으로써의 역할도 잊지 않았다.

김승철 씨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라 포장업계에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나 업계 관련되신 분들 모두 파이팅 하셨으면 한다”고 포장인들을 격려했다. ☐

제19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은 3월 중 시작될 예정입니다. (02)2026-8655~9